

Recu CLT / CIH / ITH	
Le	29 OCT. 2021
N°

Consent

Korea Culinary Association gives consent to the inscription of the element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CH of humanity.

The association carried out various activities for safeguarding the element, including noodle contests and folk dish exhibitions related to Pyongyang Raengmyon.

If the element is inscribed, it will give fresh impetus to activities of the association for protection and transmission of traditional food including the element in the country.

We hope this element would be successfully inscribed on the Representative List.

Mr O Yong Min, Vice-chairman, Korea Culinary Association, signature: [signed]

Mr HWANG Myong Chol, Secretary, signature: [signed]

Ms CHOE Mok Ran, Member, signature: [signed]

Mr KIM Yong Chol, Member, signature: [signed]

Mr KO Chang Hyok, Member, signature: [signed]

26 October, 2020

동 의 서

조선로리협회는 유산의 유네스코 인류의 비물질문화유산대표적 목록의 등록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조선로리협회는 그동안 이 유산의 보호를 위한 국수경연, 민족음식전시회 등 평양행면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유산이 등록된다면 이 유산을 포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전통음식의 보호와 전승을 위한 협회의 활동에 커다란 고무를 주게 될것입니다.

이 유산이 유네스코 인류의 비물질문화유산대표적 목록에 성공적으로 등록되기를 희망합니다.

조선로리협회 부위원장	오영민	수표	오영민
서기장	황명철	수표	황명철
회 원	최목란	수표	최목란
회 원	김영철	수표	김영철
회 원	고창혁	수표	고창혁

2020년 10월 26일

Consent

Okryu Restaurant, the representative group of safeguarding and transmission of Pyongyang Raengmyon custom (National Inventory No.6), gives consent to the nomination of this element for the inscription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ICH of humanity.

If the element is inscribed, it would promote activities of Okryu Restaurant for sustainable transmission and joint efforts of relevant organizations to safeguard the element.

Acknowledging all information on the nomination while participating in elaboration of nomination for inscription on the Representative List, Okryu Restaurant expresses free and prior consent.

Mr MUN Kyong Ho, Manager, Okryu Restaurant, signature: [signed]

Ms KIM Chun Yong, Assistant Manager, signature: [signed]

Mr OM Song Nam, Senior Staff, signature: [signed]

Ms PAK Sin Bok, Staff, signature: [signed]

Ms RI In Suk, Cook, signature: [signed]

Ms OM Su Gyong, Waitress, signature: [sig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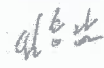



21 January, 2020

동 의 서

옥류관은 국가비물질문화유산 제 6 호 평양평면풍습을 전승하고 보호하는 주요단체로서 이 유산의 유네스코 인류의 비물질문화유산 대표적목록에로의 등록신청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평양평면풍습이 유네스코 인류의 비물질문화유산대표적목록에 등록되면 옥류관의 지속적인 전승활동과 유산의 보호를 위한 력관단체들의 공동의 노력을 도모하게 될것입니다.

옥류관은 이 유산의 유네스코 인류의 비물질문화유산 대표적목록의 등록을 위한 추천준비과정에 참가하여 등록신청에 대한 모든 정보를 통해 이해를 보다 깊이 하면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사전동의를 표합니다.

옥 류 관	경 리	문정호	수표	
	부경리	김춘영	수표	
	과 장	엄송남	수표	
	부 원	박신복	수표	
	료리사	리인숙	수표	
	접대원	엄수경	수표	

2020 년 1 월 21 일

Consent

Whenever I see our people as well as foreigners enjoy the Pyongyang Raengmyon, I get filled with pride in Pyongyang Raengmyon. I heartily give my consent to the nomination of Pyongyang Raengmyon custom for inscription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Ms CHOE Song Hui, Cook, Okryu Restaurant

Signature [signed]

7 March, 2020

2020. 3. 7.

동의서

저는 옥류관을 찾아 오는 우리 인민들만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 사람들을속에서
평양령면을 났있게 드는 모습을
볼때마다 우리 평양령면이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되면서 평양령면을 세계 비문전문화
유산으로 등록하는데 동의합니다.

옥류관 토리사 최성희
후로 최성희

Consent

As one of the cooks preparing Pyongyang Raengmyon which is the pride of Pyongyang and our Okryu Restaurant, and which is a vivid expression of our traditional culture and custom, I welcome its nomination for inscription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Ms PAK Jin Ju, Cook, Okryu Restaurant

Signature [signed]

7 March, 2020

2020.3.1.

동 의 서

저는 평양의 자랑스러운 옥류관의 자랑스러운
평양생면을 만드는 직접적인 담당자
로서 우리의 민족문화와 풍습을
자랑하는 평양생면을 세계바물길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데 동의합니다.

옥류관 요리사 박진주

수표: 박진주

Consent

It's already six years since I retired from Okryu Restaurant but neighbours call my house as Okryu Restaurant house saying that they are unable to reproduce the taste of the Raengmyon I make, in spite of my teaching.

Whenever I hear that, I get filled with pride that mine was a life of devotion for Pyongyang Raengmyon.

I am looking forward to the inscription of Pyongyang Raengmyon custom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CH.

Ms RI Sun Sil

Ryonghwa-dong No.2, Central District, Pyongyang

Signature [signed]

11 December, 2019

동 의 서

응류관료리시절 20년도지 별차 6의사였어
홍길재인 아들은 2년도 9세 집을 숙류관장이라
부르며 아들이 배아르래로 해도 내지 만을 평상성만있을
홍내까지 못가있다고 한다.

이런 말을 들은 때부터 숙류관에서 평상성만과 함께
숙류관 장로로 가서 댁에서 지내다.

나는 숙류 평상의 2년인 평상성만홍류에 하구까지 와서
비밀관장하유산 대동관공통이 등동지였어 한다

평양시 중구역 변화 2동 라5/5

2019년 12월 11일

Consent

It's been many years since I engaged in preparing Pyongyang Raengmyon.

All the noodle coils I made then probably could make a mountain.

I also trained quite a few cooks. Whenever I enjoyed the noodle they made, it reminds me of my past years at Okryu Restaurant.

Now, I am teaching my recipe of Pyongyang Raengmyon to my sister-in-law and neighbours. That's why people called my family "Pyongyang Raengmyon household".

I am happy to give my consent to nomination of the element for the Representative List and looking forward to the positive result.

Ms PAK Sol Hui

Tongdaewon-dong No.1, Tongdaewon District, Pyongyang

Signature [signed]

2 January, 2021

동 의 서

내가 평양랭면과 인연을 맺고 살아온지 수십년이
흘렀습니다. 2간 내가 만든 평양랭면을 다 합치면
아마 산을 이룰겁니다.

내가 키운 료리사들도 적지 않은데 그들이 만든 평양
랭면을 여러번 가서 먹어보니 내가 응류관에서 일할
때의 감회가 저절로 떠오르곤 합니다.

지금은 우리 며느리와 이웃들에게 평양랭면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집을
«평양랭면집» 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평양랭면 풍습을 인류의 비물질유산으로 등록하는
사업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하루빨리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응류관 이전 료리사 박선희 수포 박선희

2021년 2월 2일

Consent

I have made Pyongyang Raengmyon for long time at Chongnyu Restaurant.

Chongnyu Restaurant along with Okryu Restaurant is a representative place loved by the people creating a unique cultural landscape related to the Pyongyang Raengmyon. Working here is my great pride and joy.

I give my consent to the nomination of the element for the Representative List of ICH of humanity.

Ms CHON Kum Ran, Cook, Chongnyu Restaurant

Signature [signed]

17 August, 2020

응 의 서

나는 오래동안 원주군에서 평양평원을 만들었습니다.

응우만나 더불어 원주군은 사냥들이 사랑을 받으며 평양평원의

원주평원을 원주대주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일하는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나는 이 유산을 인하여 바깥길로써야한 대로로써야한 평양하는것을

흥미있습니다

원주군, 원주군, 원주군, 원주군

2020년 8월 17일

Consent

We fully support the inscription of the element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We took part in the nomination and gained all information on the inscription. We express our free and prior consent. The inscription on the Representative List will promote our efforts to transmit the element in the future.

Mr KIM Myong Chan, Head of a department, Pyongyang Jang Chol Gu University of Commerce,
signature: [signed]

Ms PAE Son Yong, Teacher, signature: [signed]

Ms PAK Son Bok, Teacher, signature: [signed]

16 October, 2019

동 의 서

우리는 유산과 관련된 집단으로서 이 유산의 인류의 비물질문화유산 대표적목록의 등록신청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는 이 유산의 등록추천문건작성과정에 참가하여 신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았으며 그에 기초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사전동의를 표합니다. 우리 집단은 이 유산이 인류의 비물질문화유산대표적목록에 등록되게 되면 앞으로 유산의 전승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것입니다.

장철구평양상업대학

강좌장

김명찬

수표

김명찬

교원

배선영

수표

배선영

교원

박선복

수표

박선복

2019년 10월 16일

Consent

I am an ex-teacher of Pyongyang Jang Chol Gu University of Commerce, and spent almost the whole life in the education on traditional foods including Pyongyang Raengmyon.

I am very delighted at the news that Pyongyang Raengmyon custom is going to be nominated for inscription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 extend my full support to the nomination. Although I am retired, with great pride, I am going to devote the rest of my life towards adding brilliance to our traditional foods.

Ms HYON Ju (65 years old), Ex-teacher of Pyongyang Jang Chol Gu University of Commerce

Signature [signed]

16 October, 2019

동 의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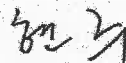
나는 한생을 평양랭면을 비롯한 민족음식에 대한 교육으로 살아온 이전 장철구평양상업대학 교원입니다.

이번에 평양랭면을 인류의 대표적인 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니 기쁨을 금할수 없습니다.

나는 이에 전적인 동의를 표시하면서 비록 년로보장자이기는 하지만 커다란 긍지를 안고 우리 민족음식들을 더욱 빛내이는데 여생을 다 바치려고 합니다.

이전 장철구평양상업대학 교원

현 주(65 살)



2019 년 10 월 16 일

Consent

When I was a child, my mother prepared very tasty Pyongyang Raengmyon for me. Until now, Pyongyang Raengmyon reminds me of my mother.

Pyongyang Raengmyon is fostering pride, precious memories and national sentiment in the hearts of all Koreans.

I absolutely support the nomination and hope for its sooner inscription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Mr RA Ki Yong (65 years old)

Neighbourhood unit No.78, Tongmun-dong No.1, Taedonggang District, Pyongyang

Signature [signed]

21 January, 2020

동 의 서

내가 어릴적에 우리 어머니는
평양랭면을 정말 맛있게 만들어주곤
하였습니다.

지금도 평양랭면을 마주할 때면
어머니모습이 떠오르곤 합니다.

나는 우리 민족의 자랑이고 추억이며
넋인 평양랭면을 인류의 대표적인 유산으로
등록하는데 대해 전적인 동의를 표시하면서
이것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양시 대동강구역 동문 1 동 78 반

라기영 (65 살)

라기영

2020 년 1 월 21 일

Consent

I lived in Pyongyang for more than 70 years, but as for Pyongyang Raengmyon I never have had enough. Pyongyang Raengmyon of Okryu Restaurant is the number one.

I am absolutely for the nomination of the element for the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ll the native Pyongyang people would agree with me, I am sure.

Mr KANG Sang Ho, Neighbourhood unit No.14, Kyongsang-dong, Central District, Pyongyang

Signature [signed]

1 January, 2020

동 의 서

평안에서 20살의 남자로 살아오리만 아쉽게
막으로 출격이 늦어짐이 평안평에서니라.

2층에서로 두루잡이 평안평에서 제정신이라.

나는 평안평에서 세상에겐 비평평등으로 응수하여
정기 회상이라.

아니 나쁜것이 아니라 모든 평안평에서로
나쁜것을이러서 생각하라.

평안의 모든 것 평안평 14번 78살로

2020년 1월 18

Consent

Our Pyongyang Raengmyon is a pride of all Koreans.

If Pyongyang Raengmyon would become a treasure of the world drawing attention and respect from all the people in the world, all Korean people, not to mention us the native Pyongyang people, would welcome it.

In spite of being a bit late, as it should have already been inscribed, I am looking forward to its inscription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Mr KIM Jong Chol

Neighbourhood unit No.40, Puksae-dong, Moranbong District, Pyongyang

Signature [signed]

15 October, 2019

동 의 서

우리 평양랭면은 조선민족의 자랑입니다.
평양랭면이 온 세계가 존경하고 관심을
지니게 되었다면 평양랭면이 아니라 조선
조선민족이 세계를 들러 댈수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것은 개를 핏기만 하더라도 평양랭면이
하루배를 먹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유서로 나왔다고
합니다.

평양시 로동봉구회 북서동 400호

김 조 기

2019년 10월 15일

Consent

South Hwanghae Province is famous as a place of production of buckwheat, the main material for Pyongyang Raengmyon. We take pride in this.

From olden times, the element has become the custom of north-western part of Korea, not to mention Pyongyang.

I love the custom as it promotes respect for elders and harmony among families and friends, and provides delight and health for people.

I give my full consent to nomination for inscription on the Representative List as valuable cultural treasure of humanity.

Mr O Song Il (aged 36), doctor, People's Hospital of Pongchon County, South Hwanghae Province

Signature [signed]

2 September, 2020

동 의 서

우리 항해남도은 그산물을 대표하는 평양행면의 기본재료인 메밀의 산지로 유명합니다. 우리 지방사람들은 모두가 이에 대해 긍지를 여깁니다. 예로부터 평양행면풍습은 평양만이 아니라 우리 관서지방의 풍습으로 되어왔습니다.

이 풍습은 옷사람을 권하고 가정의 화목과 친척친구들사이의 정을 두터이 하우며 사람들에게 기쁨과 반향을 주는 좋은 관습이라고 봅니다. 나는 평양행면을 좋아하고 그 풍습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평양행면풍습을 인류문화의 귀중한 재보, 유산으로 응축하는것을 열렬히 지지합니다.

항해남도 봉천 2성일 (36살, 군면병원 의사) 주호: 2성일

2020년 9월 2일

Consent

We, people of Nampho, make Pyongyang Raengmyon, sharing our delight on family celebratory events, holidays, or welcoming the guests, as Pyongyangites do.

If we have opportunity to visit Pyongyang, we always go to Okryu Restaurant or Chongnyu Restaurant, because of the desire to taste the real Pyongyang Raengmyon.

I think the custom of Pyongyang Raengmyon should become a part of human cultural treasure.

Ms MA Song Sun (aged 62), Yondae-dong, Waudu District, Nampho City

Signature [signed]

14 October, 2020

동 의 서

우리 남도사람들도 평양사람들처럼 집에 형사가 나타나 명절날 혹은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평양사람들을 만들어 보이며 기쁨을 나누는 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가면 위례하 우호관이나 청두관을 찾아뵙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와 평양사람들을 만났다는 자랑거리입니다

나는 맛도 좋고 온도까지 화창과 기쁨을 나누는 평양사람들과 인연이

풍류이 인연이라야 한 것입니다. 나는 평양을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하원 75 연대중 아성을 (62살, 75) 류: 아성은

2020년 10월 14일

Consent

I am now 81 years old. I can vividly remember the day I came to Pyongyang for celebrating grandfather's 70th anniversary, all of us enjoying Pyongyang Raengmyon.

Ryanggang Province is famous for potato starch noodle, but now Folk Dish Restaurant, Amnok Restaurant and Restaurant of Hyemyong Hotel are making Pyongyang Raengmyon very well. Among them, JANG Jong Sim, cook of Folk Dish Restaurant is winning renown for her Raengmyon so the restaurant is crowded with people on New Year's Day.

I hope that our good folk dish and its related custom would be carried forward, and give full consent to the nomination for the Representative List of the ICH of humanity.

Mr HAM Pong Sok, Hyemyong-dong, Hyesan City, Ryanggang Province

Signature [signed]

4 January, 2021

평 의 서

내 나이 올해 81살인데 어렸을때 평양 군할아버지 생일
70원에 가서 온 가족이 평양랭면을 들면서 흥성이던 추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 랑강도 감자농마국수가 유명한데 요즘은 민족료리食堂, 압록각
과 혜명리관식당에서도 평양랭면을 잘 만듭니다

그 중에서도 민족료리食堂 장성심료리사가 만들어주는 랑면이 유명해져서
올해 설날에도 식당이 벌써 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우리 민족음식과 풍습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또 인천의 비물질문화유산 대표적목록에 등록하는데 대해
전력으로 동의합니다

랑강도 해산시 혜평동 함봉석(81살, 부양)

수표: 함봉석

2021년 1월 4일

Consent

Pyongyang Raengmyon can be said to be a typical feature of the country expressing the pride of Pyongyang as well as the national sentiments of Koreans.

As one of folklorists, I express, with great pleasure, my full support to the nomination of Pyongyang Raengmyon custom for inscription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Mr JO Hui Nam, PhD, Head, Section for Study of Historical Record Folklore Institute under Academy of Social Sciences

Signature [signed]

5 March, 2020

동 의 서

정통의 덕과 성품이 차넘치는
정통의 자랑. 조선의 상징인 정통
정통은 신체의 대립적비율작품으로 정통
하러가 대항해 공화국민족항자의
심사관으로 커다란 기쁨을 이룬
정통의 자리를 다시 찾았네라

사회과학은 민족항쟁의 소 상징
백사 조희남

2020. 3. 5

Consent

Pyongyang Raengmyon is a splendid outcome of wisdom and knowledge of our ancestors, and
I support the nomination of the Pyongyang Raengmyon custom for inscription on the
Representative 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Mr KIM Ji Won, PhD, Head of a research group, Institute under Academy of Social Sciences

Signature [signed]

5 March, 2020

동의서

선조들의 슬기와 지혜의 산물인
평양랭면을 인류의 대표적 비물질문화
유산으로 등록하느라 고하여 산정한다.

사회과학원 민족강변연구소 실장

박사. 부교수 기/2.4.20

2022. 3. 5